

## 큐라클, 떼아와의 CU06 기술수출 계약 변경으로 추가 매출 기대

▶ 기존 계약의 임상/비임상 연구비 부담 범위 확대를 통해 약 6백만 달러 규모 추가연구자금 확보

**<2023-03-06> 큐라클(365270, 대표이사 유재현)은 CU06(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황반변성)의 개발 협력 파트너인 프랑스 떼아사와 기술이전 계약변경(Contract Amendment)을 통해 기존 계약상의 임상 2 상 비용에 추가하여 비임상 비용의 부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6 일 공시했다.**

큐라클은 지난 2021 년 10 월 프랑스 떼아사와 선금금 600 만 달러, 개발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(기술료) 1 억 5,750 만 달러 그리고 로열티 8%의 조건으로 CU06 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 단 마일스톤과는 별개로, 임상 2 상 연구에 대해서는 큐라클이 직접 수행하고 관련 연구 및 용역비 등을 떼아사가 큐라클에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이중 일부가 매출로 계상되고 있었다.

큐라클 관계자는 “이번 계약변경은 기존의 계약에서 한정된 비임상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 것”이라며 “CU06 의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큐라클이 독자적으로 이미 수행했던 여러 비임상연구(약 28 억 규모)와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연구(약 52 억 규모)에 대한 연구비를 추가로 확보했다”고 밝혔다. 덧붙여 “변경된 계약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기존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떼아사가 계약변경을 요청한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 유재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큐라클 경영진은 작년 5 월 미국을 방문하여 떼아 사의 설립자, CEO 등을 직접 만나 CU06 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고, 이에 따라 실무진에서 연구확대에 대한 협의 진행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.

떼아사의 고위 경영진 또한 지난 2 월 27 일 큐라클 본사를 방문해 작년 12 월 첫 대상자 등록 이후 순조롭게 진행 중인 미국 임상 2a 상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기 임상 개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, 큐라클과 떼아사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.